

“제주지역 폐교 활용 폭 넓힌다”

‘2026~2028 폐교재산 관리·활용 기본계획’ 수립
자체 교육적 사용 최우선… 공공목적 대부 강화
마을회·지역주민회 소득 증진 위한 사업도 가능

제주도교육청이 방치된 폐교 재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부료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조례를 개정하고, 제주도·제주도개발공사와 유휴부지 활용 공공주택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교육과 지역 수요를 아우르는 보다 폭넓은 활용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폐교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사회 중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2026~2028년 폐교재산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위한 자체 교육적 활용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되, 자체 활용 계획이 없는 폐교에 대해서는 공공목적 활용을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용 시설을 비롯해 사회 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등 지역 수요에 맞는 활용을 유도해 폐교를 지역 거점 공간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올해 계획의 가장 큰 변화는 폐교 활용 대상 사업의 범위가 대폭 넓어졌다는 점이다. 그동안은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교육·복지·문화·체육 등 공익성을 갖춘 사업만 가능했으나, 지난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행 이후에는 공익성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마을회나 지역 주민회가 실질적인 소득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마을회 등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익계약이 가능하며, 이후 도의회 심의·의결 절차를 통과하면 무상 대부로 이뤄질 수 있다.

중장기 교육행정 수요를 고려한 보존·활용 방침도 유지된다.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매각 등 효율적 관리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도교육청 관리 대상 폐교 27개교 중 17개교는 마을회 및 지자체 등에 대부돼 활용 중이다. 미대부 상태인 10개교에 대해서는 개별 여건에 맞춘 활용 방안이 추진된다. 신도초는 문서고 설치 사업 예정지로, 명월초는 서부유아체협교육원 설립 예정지로 각각 검토 중이며, 무릉중은 도교육청과 도개발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내일마을 공공주택’이 조성될 예정이다.

안전관리와 유지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도교육청은 상·하반기 정기 점검과 수시 안전 점검을 통해 폐교 시설물의 안전 등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한다. 무단 출입 방지와 전기시설 안전 조치, 노후 운동장 놀이·체육기구 정비 등 안전사고 예방도 병행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폐교는 단순한 유휴시설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기억이 담긴 자산”이라며 “제도 개선과 중장기 계획을 통해 폐교가 지역사회의 부담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역 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주민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현기자



서귀포의료원 신경외과 허윤희 과장(맨 오른쪽)이 2일 대통령 표창을 제주지사에게 전수받았다.

서귀포의료원 제공

서귀포의료원, 지역 ‘필수·중증 의료’ 최전선 역할

지난해 5월 APEC 참석 외국인 응급환자 긴급 수술
국제회의 개최지에서 공공의료 위상 높였다는 평가
“필수의료 시스템으로 작동… 재정적인 뒷받침 필요”

서귀포시 유일의 종합병원인 서귀포의료원은 24시간 응급의료 대응 체계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는 필수·중증 의료체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서귀포의료원은 신경외과 허윤희 과장이 지난해 5월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응급 상황에서 의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의료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PEC 고위관리회의(SOM2)에 참석 중이던 필리핀 국적 외교부 직원이 지속적인 두통 증상을 보여 서귀포의료원으로 응급 이송됐다. CT 검사 결과 급성 경막하출혈로 진단돼 위급한 상황이었으며, 허 과장은 즉시 응급 두개천두술과 혈종 외배술을 집도했다. 수술은 약 30~40분 만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환자는 9일간 입원 치료 후 회복해 무사히 필리핀으로 돌아갔다.

국제행사에 참석한 외국인이 응급 상황에 처한 가운데 서귀포의료원은 원스톱(One-step) 응급진료

시스템을 가동해 신속한 수술과 치료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제주가 대규모 국제행사를 안정적으로 치를 수 있는 의료 역량을 갖춘 지역임을 입증하는 동시에, 제주 공공의료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귀포의료원은 이번 응급수술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필수의료 역량과 공공병원으로서의 책임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한다.

서귀포시 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서귀포의료원은 응급·중증 환자가 발생하면 선택지가 없는 현실 속에서, 신경외과 전문의인 김진웅·이창섭·허윤희 과장은 평소 “서귀포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는 서귀포에서 최대한 살린다”는 원칙 아래 중증 응급 대응 역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귀포의료원은 그동안 응급·중증·분만·감염병 대응 등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필수의료로 묵묵히 담당해 왔다. 이는 경영 측면에서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해 왔지만, 의료원은 이를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의료’로 인식하고 역

할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필수의료 유지에는 의료진의 헌신뿐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적 지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현재 서귀포의료원은 필수·중증 진료체계 운영과 유지를 위한 인건비를 지원받아 중증·응급 의료진의 상시 대기 및 24시간 응급의료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서귀포의료원은 앞으로도 응급·중증·감염병·취약계층 진료를 중심으로 산남지역 주민은 물론 제주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 모두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필수의료 중심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윤복 서귀포의료원장은 “지난해 APEC 당시 응급수술 사례는 우연이 아니라 서귀포의료원이 오랫동안 지켜온 필수의료 시스템의 결과”라며 “필수의료는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작동해야 하는 영역이며, 서귀포의료원은 그 책임을 끝까지 지켜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필수의료 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헌신뿐 아니라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서귀포의료원이 지역과 국가를 지키는 필수의료 병원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제주노동포럼 4일 출범 노동 현안 정보 공유·협력

제주지역 노동 기관들이 매달 정기적으로 모여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찾는 새로운 소통 자리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는 4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2026 제주노동포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제주노동포럼은 제주 지역의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와 광주노동청 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 제주도청 노동일자리과가 주축이 되고, 노사 관련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 포럼은 앞으로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정례적으로 열린다.

이상민기자

악성 가축 전염병 신속 진단 기반 마련 제주동물위생시험소 생물안전연구동 준공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사회재난형 가축 전염병 정밀 검사를 위한 생물안전연구동을 준공했다고 2일 밝혔다.

생물안전연구동은 국비 30억원 등 총 6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767.2㎡,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다. 생물학적 위험성이 높은 감염성 물질을 취급할 수 있는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BL3, Biological Safety Level 3)로 고위험 병원체를 완전 밀폐된 환경에서 실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방역 인프라다. BL3 차폐실험실 3개와 BL2 실험실(형질검사실, 유전자검사실)

등 정밀 검사 시설을 갖췄다.

제주동물위생시험소는 현재 조류인플루엔자(2017년 9월), 구제역(2017년 12월), 아프리카돼지열병(2022년 7월) 정밀 진단 기관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준공된 생물안전연구동이 질병관리청 인증을 받으면 BL3 실험실 3곳에서 질병별로 고위험 병원체를 독립적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BL3 실험실 민간 개방 정책과 연계해 도내 백신 개발이 필요한 대학·기업 등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개방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2026년도 덕수초 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2026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덕수초등학교 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26년 2월 6일(금) 18:30
장소 덕수리사무소 2층 회의실

덕수초등학교
DOKSU ELEMENTARY SCHOOL

덕수초등학교 총동문회 조직도(2026년도)

